

러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1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의견	11

I. 일반개황

면적	17,098 천 km ²	G D P	12,832억 달러 (2016년)
인구	1.43억 명 (2016년)	1 인 당 GDP	8,946달러 (2016년)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통 화 단 위	Russian Ruble(RUB)
대외정책	동북아시아 및 중동, 신흥국들과의 협력 정책	환 율 (달러당)	60.06 (2016년 평균)

- 러시아는 세계 최대 면적의 영토를 보유한 국가이며, 2016년 말 기준으로 세계 2위의 원유생산국,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이 강력한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2012년부터 3기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 3월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 예정으로 당선이 유력함.
- 2014년 이후 유가하락과 함께 크림반도 병합,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내전 개입 등에 따른 서방의 대러 제재로 경기가 침체되었으며, 2017년 세계경기회복과 산유국 감산 합의에 따른 유가 안정으로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거시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음.
- 러시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 등 5개국이 가입하여 2015년에 설립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EU와 같은 정치, 경제 연합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f
경제성장률	1.3	0.7	-2.8	-0.2	1.8
재정수지 / GDP	-0.9	-1.1	-3.4	-3.7	-2.1
소비자물가상승률	6.8	7.8	15.5	7.0	4.2

자료: IMF

□ 국제 에너지 시장의 유가 안정으로 2017년 1.8% 경제성장률 추정

- 2017년 국제에너지 시장의 유가 안정추세에 따라 러시아 경제는 지난 2년 동안의 마이너스 성장('15년 -2.8%, '16년 -0.2%)에서 1.8%의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한 것으로 평가됨.
- 산업생산증가율은 2015년 -0.8%에서 2016년에는 1.3%로 상승하였으며, 2017년에도 10월까지 1.6%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정자본투자 증가율도 2016년에는 -4.6%에서 2017년에는 10월까지 0.8%로 상승한 것으로 평가됨.

□ 2017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 감소

- 2013년 이후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2017년에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2015년, 2016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됨.
-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15년과 2016년의 -3%대에서 2017년 -2.1%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이는 OPEC과 러시아 등 석유수출국들의 감산 합의, 세계경제 회복세 등으로 유가가 안정됨에 따라 원유와 가스 부문의 세입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

- 러시아 루블화 환율의 안정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하락함.
 - 루블화 환율의 큰 폭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4년 7.8%, 2015년 15.5%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2016년에는 7.0%로 하락한 데 이어 2017년에는 4.2%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라 중앙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2017년 10%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7.75%로 인하하였음.
 - 중앙은행은 2015년 이후 기준금리를 2015년의 17%에서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음.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

- 국가경제가 에너지 부문에 크게 의존하여 국제 에너지 시장의 원유·천연가스 가격 변동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큰 경제구조임.
 - 러시아 에너지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6년 기준으로 원유, 천연가스 및 광물 부문이 GDP의 22.6%, 정부 재정의 38%, 수출의 56.9% 비중을 차지하는 자원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임.
 -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에너지 부문이 주요 경제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변동하고 있으므로 국가 경제운용에 큰 어려움이 있음(2015년 에너지 부문은 GDP의 27%, 세수의 43%, 수출의 63%를 차지하였음).

□ 금융부문의 취약성

- 최대 민간은행의 부도 위험으로 중앙은행이 구제금융을 실시하는 등 여전히 은행권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중앙은행은 2017년 7월 재무구조 악화를 이유로 S&P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최대 민간은행인 '앗크리치예'의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이 은행에 구제금융을 제공한 바 있음.
- 은행의 수는 2014년 1월 923개에서 2017년 10월 574개로 감소하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은행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금융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에너지 자원, 전력의 개발 잠재력

- 2016년 기준 러시아는 전세계 원유 생산의 12.4%를 차지하여 2위를 기록하였으며, 천연가스 생산에서도 전세계의 16.3%로 2위를 차지하였음.
- 세계 주요 에너지 생산국으로 유럽과 동북아시아 등에 석유와 가스를 공급하며, 북극해 등에 다수의 미개발 유전,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음..
- 석탄 생산량은 세계전체 생산의 5.2%로 다섯 번째 규모이며, 발전량도 4.3%로 다섯 번째임.

□ 국부펀드 및 예비기금 활용을 통한 발전 가능성

- 에너지 수출소득을 통해 축적한 국부펀드와 예비기금을 국가경제 안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러시아 연방의 연금펀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부펀드 규모는 2017년 12월 기준으로 GDP의 4.2%인 669억 달러에 달함.
- 정부재정 지원, 인플레이션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기금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GDP의 1.1%인 170억 달러에 달함.
- 이 자금들은 정부재정 지원, 환율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비상시 기업 지원 등을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됨.

다. 정책성과

□ 극동러시아 지역 발전을 위해 2015년 이후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있으며, 동방경제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

-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한 연해주의 16개 지역과 극동 러시아의 다른 지역 4곳 등 20곳에 경제특구 형태의 자유항을 지정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관세자유지역 운영, 외국인 무비자 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2016년에는 연해주 이외의 캄차트카, 하바롭스크 주, 사할린 주, 추코트카 등에도 자유항이 지정되었음.
- 러시아 정부는 2015년 이후 극동러시아 전 지역에 걸쳐 경제특구 형태의 선도개발구역을 지정하여 농업, 에너지, 물류,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2017년 12월 기준으로 연해주, 하바롭스크 주, 사하공화국, 추코트카, 아무르 주, 캄차트카, 유대인 자치주 등에 18개의 선도개발구역이 지정되었음.
 - 지역별로는 연해주, 하바롭스크 주, 사할린, 아무르 주에 가장 많은 각 3개의 선도개발구역이 지정되었음.
- 극동러시아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해 토지 무상분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17년 11월 기준으로 10만 여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3만 3천여 건이 승인되었고, 나머지는 검토 단계에 있음.
 - 토지 무상 분배는 농업, 임업, 어업, 건설업 등의 목적으로 1인 기준으로 1헥타르의 토지가 5년 간 무상으로 분배되며, 이후에는 임대 또는 개인 소유로 이용이 가능한 조건임.
- 극동러시아 지역의 발전을 위해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는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대대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등의 성과를 거둠.

- 2015년부터 매년 9월 세 차례 회의가 개최되어, 한·중·일의 대통령, 총리 등 정부 정상들을 비롯한 다수의 대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의 주요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야말 LNG 프로젝트 생산 개시

- 2017년 10월 시베리아 북극 지역 야말반도에서 러시아의 두 번째 LNG 공장이 가동을 개시함.
 -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의 부상을 시도하는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LNG를 북유럽에 수출하며, 향후 북극 항로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을 계획하고 있음.
 -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LNG 규모는 약 1,650만 톤 규모이며, 이는 현재 까지 유일한 LNG 생산지역이었던 사할린-2의 생산규모인 1,100만 톤을 상회하는 것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f
경 상 수 지	33,428	57,513	68,829	25,543	39,821
경 상 수 지 / G D P	1.5	2.8	5.0	2.0	2.7
상 품 수 지	180,566	188,931	148,398	90,262	109,355
수 출	521,835	496,806	341,419	281,850	338,257
수 입	341,269	307,370	193,021	192,955	228,901
외 환 보 유 액	469,603	339,370	319,835	317,545	353,809
총 외 채 잔 액	728,864	599,901	519,101	514,132	538,632
총 외 채 잔 액 / G D P	32.7	29.1	38.0	40.1	36.0
D S R	33.5	20.4	15.6	10.6	15.5

자료: IMF, EIU, OECD.

□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수출과 수입 규모가 동시에 증가하였으며, 경상수지는 흑자 유지

- 국제 에너지 시장의 유가 안정으로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실질임금 증가에 따른 국내수요 확대로 수입도 늘어남.

- 2017년의 수출액은 2016년에 비해 20%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수입액도 1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상수지는 GDP 대비 2.7% 흑자가 예상됨.
- 경기회복에 따라 민간소비량도 2016년의 -10.0%에서 2017년에는 10월까지 0.8%로 상승하여 수입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됨.

□ 외환보유액 규모 다소 증가

- 2017년 국제유가 안정세에 따른 세수 증대로 외환보유액이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음.
-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2017년 말 3,538억 달러로 전년말의 3,176억 달러 비해 11.4% 증가하였음.

□ 루블화 환율은 안정세 기록

- 국제유가의 안정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규모 증가로 미 달러화 대비 루블화 환율은 2016년 초 이후에 지속 하락하여 2017년 12월 57~59루블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음.

□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안정적인 수준이며, D.S.R.은 다소 높은 수준

-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2016년의 40.1%에서 2017년 36%로 하락하였으며, 정부채무도 GDP 대비 17.4%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DSR은 2014년의 20.4%에서 2016년의 10.6%로 하락하였으며, 만기도래 상환액의 증가로 2017년에는 15.5%로 다소 상승함.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안정

□ 푸틴 대통령, 2018년 3월 대통령 선거 당선 유력

- 푸틴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로 안정적인 지도력을 유지하고 있음.
 - 러시아 여론조사업체인 레바다 센타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3년 8개월 동안 8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2018년 3월로 예정된 대선에 출마를 발표하여, 4기 집권이 유력한 상황임.
 - 러시아 대선에는 공산당, 자유민주당, 야블로코당 대표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초대 민선 시장의 딸이며 유명 방송인인 소브착 등이 출마할 예정이지만 푸틴의 당선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반정부 운동가인 나발니 등의 주도로 푸틴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운동이 추진되고 있음.
 - 나발니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과거 유죄 판결 경력으로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 보이콧 운동을 추진할 계획임.

2. 사회안정

□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실질임금상승률이 증가하고, 실업률 하락

- 실업률이 하락하고, 실질 임금은 상승 추세임.
 - 실업률은 2015년의 5.57%에서 하락추세이며 2017년 5.47%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실질임금 상승률은 2015년의 -9.0%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에는 0.8%로 상승하였고, 2017년에는 3.0%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됨.

□ 반부패 운동이 전국적으로 발생

- 2017년 3월과 6월 관료들의 부패척결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주요 도시를 비롯한 러시아 전역에서 발생하였음.
 - 이 시위는 2017년 3월 러시아 시민단체에 의한 메드베데프 총리의 부정

부패, 재산축재 의혹을 제기한 보고서 발표에 따른 것임.

3. 국제관계

□ 중국과의 협력 강화

- 중국은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부문에서 러시아의 극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시베리아 가스전에서 중국으로 가스를 공급하게 될 가스관 건설공사가 2014년 착공되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 극동러시아 지역에서 자루비노 항 등의 항만 개발, '프리모리예 1,2' 등의 운송로 건설과 농업,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중국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음.
 -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서방의 제재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야말 LNG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하며 에너지 프로젝트 지분 인수, 에너지 수입을 연계하여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서방과의 갈등 관계 지속

-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분쟁으로 시작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지속되고 있음.
 - EU는 2017년 6월 대러 경제제재의 6개월 연장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년 1월 말까지 대러시아 제재가 지속되고 있음.
 - 미국은 2017년 8월 초 대러 제재 해제를 대통령의 결정이 아닌 의회에서의 결의를 통해서만 결정할 수 있는 강화된 법안을 제정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OECD 회원국 ECA에 대해 일부 연체

- 2017년 6월 말 기준 러시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승인금액은 단기 17.74억 달러, 중장기 284.20억 달러 등 301.94억 달러에 달함.
- 단기외채 가운데 20만 달러가 연체 중이고, 이 가운데 10만 달러는 회수불능 상태임. 중장기 외채 가운데 1억 1,290만 달러가 연체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670만 달러가 회수불능 상태임.

2. 국제시장 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경제지표 개선에 따라 Fitch는 2017년 9월 신용등급전망을 stable에서 positive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Moody's는 2월 Negative에서 Stable로 등급전망을 상향 조정한 바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4등급 (2017. 1.)	4등급 (2016. 1.)
Moody's	Ba1(Stable) (2017. 2.)	Ba1(Negative) (2015. 2.)
Fitch	BBB-(Positive) (2017. 3.)	BBB-(Stable) (2016. 10.)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0. 9. 30 (북한과는 1948. 10. 12)
- 주요협정: 무역협정(1990), 이중과세방지협정(1992), 관광협정(2001), 항공협정(2003), 우주기술협력협정, 비자협정(2010), 해상운송협정(2011), 사증면제협정(2014), 문화원 설립 및 운영협정(2015), 해상 수색 및 구조협정(2016)

□ 대러시아 직접투자(2017년 말 누계): 536건, 25.3억 달러

□ 교역규모

<표 4>

한-러시아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주요품목
수 출	10,129	4,686	4,769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수 입	15,669	11,308	8,641	원유, 석유제품, 석탄
합 계	25,798	15,994	13,410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의견

- 러시아 경제는 국제유가 안정의 영향으로 2015년과 2016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2017년 1.8%의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하고,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은 감소하고, 경상수지 흑자 비중 증가 등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음.
- 에너지 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제조업 생산품의 낮은 경쟁력, 금융 부문의 취약성 등이 안정적인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지지율이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4기 집권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지속에 따라 EU, 미국과 갈등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극동러시아 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한 경제협력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과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음.
- 2017년 GDP 대비 총외채 비중과 공공부채 비중은 각각 36.0%, 17.4%로 안정적인 수준임.

조영관 선임연구원(☎02-6255-5759)

E-mail: ykj@koreaexim.go.kr